

韓 · 中 · 日 3국의 圭 · 笏에 관한 研究

임 명 미

동덕 여자 대학교 교수

A study on the Kuei of the Jade Tablet, Hole of the Ivory Tablet, Ancient Korea and China, Japan

Myung-Mi Im

Prof. Dongduk women's Univ

(2000. 6. 21 투고)

ABSTRACT

Jade, which is a kind of stone, with its transparent body, lustrous and bright character, But jade is not the only fair stone. There are three kinds of jade objects : 1) tallies used in the court. 2) ceremonial jades. 3) ordinary jade for decoration, for inlaid work and for burial.

Among the ceremonial jade, the most important were the "liu jui" and "liu ch'i." The former was supposed to be held by people in the court as symbols of their authority : 1) "chen-kuei(鎮圭)" for the emperor. 2) "hang-kuei(恒圭)" for a duke, 3) "hsin-kuei(信圭)" a marquis, 4) "kung-kuei(躬圭)" for an earl, these "kuei" were alike in shape, but differed in size. 4) "ku-pi(穀璧)" for a viscount. 5) "p'u-pi(蒲璧)" for a baron. "pi(璧)" differed in decoration but were alike in shape.

"Liu ch'i(六器)" were ceremonial objects used by the emperor in worshipping Heaven, Earth, and the Four Directions : "ts'ang-pi(蒼璧)," greenish jade disk, used in worshipping Heaven : "huang-tsung(黃琮)," yellow jade cylinder, used in worshipping Earth : "ching-kuei(青圭)" blue jade tablet, used in worshipping the East : "chih-chang(赤璋)," red jade tablet, used in worshipping the South : "hsüan-huang(玄璜)," black crescent, used in worshipping the North.

Five kinds of tallies were "chen-kuei(鎮圭)," "yen-kuei(琰圭)," "yuan-kuei(玩圭)," "ku-kuei(穀圭)." They were used to console people during disaster, to subjugate an official who had committed a crime, to reward a prize to an official for his merit or good conduct, to arbitrate disputes between high officials, to marry princess, and to dispatch troops.

Since the west wei(西魏), Kuei and Hole were made of Ivory, wood and bamboo, who had ivory for fifth grade and wood and bamboo for under sixth grade.

After Eastern Chou, all officials beginning to had kuei , hole, symbol of Authority, and his wives.

After Dang dynasty, Japan is the same. In korea, After king Bupheung in ancient and South(unification) Silla, North Kingdom Bohai, Koryo, and Chosun dynasty had ceremonial jade, Kuei and Hole.

Key Words : 圭(Kuei of the jade Tablet), 笏(Hole of the Ivory Tablet), 古代中國, 일본, 한국(Ancient China and Japan, Korea), chen-kuei(鎮圭) for the emperor, hang-kuei(恒圭) for a duke, hsin-kuei(信圭) a marquis, kung-kuei(躬圭) for an earl.

I. 서론

1. 연구목적

이 논문은 조선시대의 경우 문헌자료나 傳世 實遺物 등으로 그 제도를 알수가 있으나, 통일(南國) 신라 이후 궁말까지 우리나라 국왕이하 관직자용 圭(諸侯가 갖는 玉製 禮器의 명칭임), 笏(大夫이하가 갖는 象牙와 木製 禮器의 명칭임)에 관한 형태 및 치수, 홀을 싸는 손잡이의 服色에 관한 것을 알아보기가 어려워 동시대 주변제국들의 사료나 전세실물 繪圖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제도나 형태, 服色을 밝혀 보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

1. 상고이래 明代까지 중국측 史料 및 傳世 繪圖, 유물, 關聯研究書 등을 중심으로 圭, 홀 등의 제도와 홀의 손잡이를 싸는 것으로 발전하는 玉製 禮器를 싸는 器物인 蘇藉를 고찰하고,
2. 일본의 圭, 홀의 전세유물, 관련연구서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3.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 백제, 古新羅代의 三國 이후부터, 조선이후 궁말(대한제국)까지 국왕이하 관직자용 圭, 笏의 제도와 笏의 손잡이를 싸는 재료와 色을 繪圖, 문헌자료 및 전세실물에 접근하여 고찰 규명한다.

3. 연구방법

取得 可能한 範圍內에서, 상고이래 明代까지 중국측 史料 및 전세 회도, 유물, 관련연구서 등을 중심으로 圭, 홀, 蘇藉 등의 제도와 일본의 圭, 홀에 관한 문헌자료 및 전세실물,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 이후, 궁말(대한제국)까지, 왕이하 관직자용 圭,

笏의 제도를 前世繪圖, 문헌자료 및 전세실물에 접근하여 고찰 규명한다.

II. 본론

1. 중국의 禮器로서 玉 제품, 圭·笏·手板.

玉은 광물학적으로는 돌이지만,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과 찬란한 광택 등으로 고래로 진귀한 보석으로 통용되고 있다. 玉이 지닌 천연적인 색으로는 백, 청, 황, 碧, 墨 등이 있고 옥의 硬度에 따라서 軟玉과 硬玉으로 나눈다

上古이래 중국에서는 옥으로 만든 제품을 3종류로 大別하여 사용하여 왔다.

(1) 祭祀 禮物로 예배의 대상.

(2) 天子이하 爵位를 가진 사람이 신분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禮器.

(3) 민간이나 일반적인 개인이 장식품이나 喪葬器로 사용하는 경우.

禮器로 사용하였던 玉중에서 중요한 것은 “六端”과 “六器”이다.

“六端”은 정부에서 규정하는 규격의 寸法에 따라서 제작하는 “4종의 圭”와 “2종의 璧”으로 나뉘지며, 작위를 가진 사람에게 爵位수여시 사용하였고, 소유자는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였다. “六端”에 속하는 4種의 圭¹⁾와 2種의 璧²⁾은, 신분에 따라서, 모양, 문양, 尺寸의 長短을 달리하여 신분을 구분하였다. 圭나 笏, 璧외에 山川 祭祀時나 巡狩시 사용하는것으로 璜³⁾이 있었다.

“六器”⁴⁾는 천자가 天地와 四方에 祭禮를 드릴 때 사용하는 祭祀 容器로 天地신에게 제사 지낼때는 “창벽⁵⁾”과 “황종⁶⁾”을 썼다. 즉, 상고시대 중국인들의 관념에서는 “天圓 地方”의 관념,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고 생각하는 관념에서 둥근

玉은 하늘에 제사 지낼 때, 네모난 玉은 땅에 祭祀 지낼 때 사용하였다. 동, 서, 남, 북의 4方 神에게 제사 지낼 때는 靑圭(東方), 赤璋(南方), 白虎(西方)⁷⁾, 玄黃(北方)을 사용하였다.

玉器는 天地, 四方神, 先祖의 祖上神 등에게 祭祀時 幣帛의 禮物로 쓰인 외에, 또 천자나 제후의 납징 빙례물로 쓰였다. '周禮'에 있는 納徵禮物에 대하여, 漢代 정현의 註釋에 보면, '周代 士大夫는 납징 예물로 玄, 纁 布帛의 2종류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에 제후는 大璋, 천자는 穀圭를 더 하였다'고 되어 있다.

宋代 진상도의 '禮書'에도 같은 내용으로, '周代에는 납징 예물로 皮(儷皮)와 玄, 纁色 布帛의 2종류를 썼는데, 여기에 제후는 大璋, 천자는 穀圭를 더 하였다'고 되어 있다.

6幣는 (1)圭와 馬 (2)璋과 皮 (3)璧과 帛 (4)琮과 錦 (5)琥와 繡 (6)璜과 黼 등을 말하는데, 즉 6幣 禮物 玉器로는 (1)圭 (2)璋 (3)璧 (4)琮 (5)琥 (6)璜 등의 禮器가 사용되었다.⁸⁾

玉器는 天地, 四方神, 先祖의 祖上神 등에게 祭祀時 幣帛의 禮物, 또 천자나 제후의 납징 빙례물로 쓰인 외에, 天子이하 爵位를 가진 사람이 身分의 象徵으로 圭, 笏⁹⁾을 使用하였다.

1) 先秦, 漢 時代

禮記에 보면, 天子는 珽¹⁰⁾을 갖는데, 모양은 方正하고, 諸侯는 荼¹¹⁾를 갖는데 모양은 앞(위)이 둥글고 아래가 方正하여 모가 진다. 즉 모양이 "上圓 下方"하다는 뜻으로, 앞(위)이 둥글고 아래가 方正하여 모가 지고 앞에서 뒤로 약간 굽어진(휘어진) 모양으로, 즉 이를 '前掘後直'하다 라고 표현하였다. 모양이 위가 둥글고 아래가 네모지고, '前掘後直' 한것은 위에 天子가 있어서 謙讓을 나타낸 意味라고 한다.¹²⁾

또 諸侯는 "圭"를 갖는 것을 祥瑞롭게 여겼다고 되어있어, 이로 보면, 천자나 제후가 다 玉禮器를 갖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이를 지니는 것은, 신분의 고귀함을 나타내주되, 크기나 모양과 명칭이 신분에 따라서 다르며, 天子가 갖는 것은 '珽(일명 大圭)', 제후가 갖는 것은 '荼'와 '圭'라고 한것으로 이해되어 진다. 大夫 以下가 갖는 것은 모두 '笏'이라고 하였는데, ".....大夫는 '圭'를 갖지 않고 '笏'

을 갖는데, 이는 諸侯와 大夫가 각각 稱이 다르기 때문"이며¹³⁾, 商,周代에는 笏의 材料로 大夫 以下는 '竹笏'을 썼다.

圭, 笏의 시작에 대하여, 宋代 '事物起源'에 보면, 武王이 "...紂를 討伐 한 後, 보복이 두려워...劍을 몸에 지니지 못하도록, 帶에 笏을 지니도록 하였다"는 古事를 引用하여, '이것이 周代에 笏을 使用하기 始作한 動機'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禮記에 보면, "圭"와 "笏"은 모양과 크기와 사용재료상의 구분이 있었고, 만드는 재료는 천자는 玉, 諸侯는 象牙로 만들고, 재질은 다르나 천자와 제후가 사용하는 것은 '圭'이며, 大夫以下는 文竹을 써서 만들고, 크기나 모양에서 차이가 있으나, 용도는 같되, 그 명칭은 '笏'이다. 大夫가 드는 '홀'의 모양은 前掘後掘한 모양이다.

이상은 문헌기록상의 고찰이며, 前世 유물상으로 보면, 玉, 象牙, 竹木이 圭, 笏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음을 알수가 있다. 문헌 기록상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戰國시대의 출토 유물상으로 보면, 石製도 있다<도 14-5. 6>. 이로 보면, 戰國時代에는 돌로도 圭, 笏의 禮器를 만들었음을 짐작케 한다.

圭, 笏의 身分에 따른 規定과 使用法은,

禮記에 보면, 제후나 대부가 天子를 謁見하거나 大射와 鄉射등의 敬禮시에도 반드시 손에 笏을 지녔으며, 뿐만 아니라 大廟에 들어가서도 笏을 손에 쥐지 아니 하는 것은 禮가 아니었다고 되어 있으며, 심지어 喪葬禮시 小功에도 笏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으나, 殮襲을 할 때나, 冠을 벗고 머리를 풀어 내리거나 할 때는 笏을 내려 놓는다고 되어있다. 또, 임금 앞에서 諸侯나 百官이 무슨말을 하거나 指示를 할 때는 반드시 笏을 使用하여 말하고 指示하며, 또 임금이 命을 받으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笏에 記錄하는 등의 目的으로 笏을 使用 하였고¹⁴⁾, 또, 笏 使用時, 行禮時에는 반드시 圭, 笏을 手中에 두고, 禮를 마치면 허리의 帶사이에 끼워두는데, 笏을 帶에 끼우려 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禮記 內側에 보면, 평서민의 경우에도, 男子가 容儀를 端正히 갖추 때는 반드시 허리의 帶사이에 笏을 꽂으므로서 容儀를 完全하게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다.¹⁵⁾

大夫가 公所에 나아갈때는 대부의 家臣이 대부에 게 笏을 올렸는데 笏을 바칠때는 왼손에 쥐고, 오른손으로 왼손의 아래를 받쳐서 드렸으며,¹⁶⁾ 大夫가 임금을 알현하고자 할 때는 임금에게 올릴말을 생각 한것의 내용, 임금께서 묻는 말에 대답할 내용, 君命으로 奉行할 일들을 笏위에 써서 만일의 잊어 버릴것에 대비하였다.¹⁷⁾

또, 君은 나라가 가물면,牲을 죽여 밥상에 올리지 않으며, 凶年에는 布衣를 걸치고, 신분표상으로 지니는 圭, 홀도 그 사용재료의 格을 낮추어서, 摺本¹⁸⁾을 가지므로서 謹身하였다.

周代이후 禮書類에 보이는 圭, 笏의 명칭에는 大圭, 介圭, 鎮圭, 穀圭, 恒圭, 琰圭, 琮圭, 青圭, 緣圭, 信圭, 躬圭, 冒圭, 土圭, 笏 등이 있고, 禮書類에 보이는 각각의 명칭에 따른 圭, 笏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大圭¹⁹⁾--天子가 갖는 玉笏을 말하며, 길이는 周尺으로 3尺²⁰⁾으로, 方直한데 笏의 머리에서 4치(8cm)이하는 약간 죽어 있다. 망치의 모양과 같으므로 이를 '終揆首'라고 하였고, 終揆首 아래 笏의 길이는 2尺 6寸(52cm)인데 이를 "珽"이라고 하였으며 구부러진 곳이 없기 때문에 취한 이름이라고 한다.

宋代의 고승이 쓴 "事物起源"에 보면, 周의 武王이 太公에게 이르기를 "...商王 紂를 討伐한후 ...報復이 두려워 ...劍을 帶에 차는 것을 禁하고 代身 笏을 허리에 차도록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 이로 보면, 周代에 天子用 大圭는 劍처럼 허리에 찻으며, 大圭는 모양이 方正하고 크기가 3尺 크기인데 머리부분의 4-6치 가량을 죽여서 그 部分의 名稱을 '종규수(終揆首)'라고 하였고, <도>의 插圖에 보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머리 아랫 부분은 48-52센티 크기로 劍모양을 하였음을 알수있다.

나) 介圭---천자가 諸侯를 冊封할 때 쓰는데, 周禮에 의하면, 1자 2치(24센티) 크기의 玉이다.

다) 鎮圭(鎮圭)---天子나 王이 손에 드는 玉器를 말한다. '周禮'와 '三禮圖' 所載 禮器圖說에 보이는 鎮圭의 모양은 각각 다르나, 周禮에 의하면, 크기는 1자 2치(24cm), 너비 3치(6cm), 두께 1.5치(3cm)라고 明示 되어 있으며, 위의 좌우를 각각 0.5치(1cm) 깎아 주었다. 圭의 面에는 '鎮安天下'의 意味

로 4개의 山(鎮)문을 위에 2개, 아래 2개, 4개를 彫刻하였기 때문에 天子나 王이 드는 圭의 이름을 '鎮圭'라고 하였다. <도 2>는 중국 禮書類에 보이는 鎮圭類와 定陵출토 實物로, 모양은 다르나 表面에 山字紋樣을 刻印하려고 試圖한점은 같다.

라) 곡규(穀圭)---穀圭는 玉器의 表面에 좁쌀알(곡식알) 紋樣을 彫刻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明代 貞陵출토 전세실물<도 3-5>, 天子가 嘉禮(婚禮)時 納徵禮物²¹⁾로 사용하였다. 禮書類의 插圖를 보면, 時代에 따라서 玉에 새긴 곡식문양의 形象이 다른데, 이는 象徵的인 意味의 곡식알 문양이 時代를 거처오면서 製作者의 곡식알에 대한 解釋의 差異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理解되어진다<도 3>.

마) 항규(恒圭)---公爵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드는 圭의 명칭이다. 周禮에 의하면, 크기는 9치 크기이며 넓이 3치, 두께 반치 크기이다. 위의 좌우 양쪽으로 반치 가량 깎였다. 玉圭의 表面에 머리 部分부터 아래까지 쌍으로 기둥 紋樣이 도드라지게 彫刻되어 있는데, 이는 宮室의 기둥을 나타내는 意味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하며, 나라의 기둥으로서의 諸侯가 갖는 職分에 意味를 附與한 것이며, 宮室 기둥을 잘받쳐 주므로 그 위에서 天子가 便安하게 居할 수 있고, 또 天子가 便安하므로 諸侯도 便安하다는 意味를 갖고 있다²²⁾. <도 4>에서 보면, 몸체에 기둥 모양을 刻印하려고 한 점은 모두 같다. <도 4-8>은 明代 定陵출토 황제용 恒圭의 출토실물 이다.

바) 염규(琰圭)---周禮에 의하면, 크기는 9치이며 笏의 半以上을 날카롭게 깎아서 만든다. 이는 義롭지 못한 諸侯의 惡行을 없애고, 나라의 規則을 올바르게 지키는지, 審判이나 判斷을 하러, 천자나 王을 代身하여 目的地에 가는 王의 使者가 가지고 가는 瑣節이다²³⁾. <도 7-2.4>에서 보면 위쪽 끝이 날카롭지 않다.

사) 완규(琮圭)---周禮에 의하면, 9치 크기이며, 諸侯의 大夫가 婚禮時 納徵禮物로 使用할 때 쓴다. <도 8> 머리부분이 角이고 모양은 대개 일치한다.

아) 靑圭---圭의 색이 靑色이므로 붙여진 명칭이며, 方位가 청색이므로 東方이며, 그로 인해 玉器의 색이 靑色이며, 봄을 상징하는 意味를 가지고 있다. 모양은 위를 각각 반치 가량 깎아서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다.²⁴⁾〈도 9〉

자) 緣圭(전규)---周禮에 의하면, 크기가 8치이며, 諸侯나 百官이 王을 謁見 할 때 사용하였다. 圭의 머리 部分과 몸체 全體를 文飾하였기 때문에 “전규”란 이름을 붙였다.〈도 10〉

차) 信圭---象牙로 만들고, 侯爵품계를 가진 사람이 들며, 周禮에 의하면, 크기는 길이가 7치, 두께 반치, 넓이 3치이다. 圭의 面에 사람의 모습을 彫刻하였고, 위의 1.5치 程度 左右를 깎았다. 이 圭를 지닌 사람은, 慎重하게 行動거지를 갖도록 하므로서 保身의 意味를 갖고 있다.²⁵⁾〈도 5〉 三禮圖에 보면, 信圭를 쓰는 纁藉는 三彩三就이다.

카) 躬圭(躬圭)---象牙로 만들고 侯爵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들며, 周禮에 의하면, 크기는 길이 7치, 두께 반치, 넓이 3치이다. 신규와 마찬가지로 圭의 面에 사람의 모습을 彫刻하였고, 위의 1.5치 정도 左右를 깎았다. 〈도 6〉 躬圭를 쓰는 소자는 三彩三就이다.

타) 冒圭(冒圭)---모양이 方正하며, 周禮에 의하면, 길이 4치 크기이다. 諸侯 朝見時 子爵이 든다.²⁶⁾ 〈도 11〉

파) 토규(土圭)---1자 5치(30cm) 크기이며, 해 그림자나 土地를 測量하는데 썼다. 〈도 10-1〉

하) 笏²⁷⁾---대부 이하가 드는 것을 말하였고, 재료는 竹木으로 만들고, 재료와 모양과 형태에서 圭와 차이가 있다. 〈도 12〉

〈도 1〉에서 〈도 12〉까지는 “禮書” 및 傳世 繪圖.

文獻資料상의 圭, 笏에 관한 插圖자료이며, 〈도 14〉는 商, 殷, 周代이후 傳世 實有物들이다.

2) 魏·晉·南北朝시대

後魏이후 부터 圭·笏을 만드는 재료를 5품 이상은 象牙, 6품이하는 竹, 木을 병용하도록 규정하였다. 命婦가 笏을 드는 記錄은, 後周 以前 문헌기록 상으로는 上考해 볼수가 없다. 後周에서 보정 4년, 백관이 笏을 들기 시작한 이후, 內外命婦도 笏을 들도록 하므로서, 남편의 品級에 따른 笏을 命婦도 後周 이후부터 들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晉書 여복지에 보면, “笏은 옛날에는 貴賤을 막론하고 다 손에 들었는데 일이 있을때는 허리의 腰帶에 꽂아두었다.....手板(笏)을 들고 筆은 머리에 쓴 冠帽옆에 紫皮로 만든 주머니의 안에 집어 넣어 두었다”고 되어 있다.²⁸⁾ 〈도 15〉 참조

3) 唐代

唐代는 新,舊 唐書, 여복지, 武德 4年 8月 詔勅을 내려 5品以上은 象牙笏을 들되, 모양이 뒤로 약간 굽어진 모양으로 하므로서 武德이래 “上圓 下方”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²⁹⁾

開元 8年 9月以後 3품 以上者는 前掘後直, 5품 이상자는 “전굴 後挫”의 모양으로 象牙로 만들고, 9品 以上은 竹, 木으로 만들되 “上挫 下方”으로 規定하고 執笏하도록 하였다.³⁰⁾

<표 1> 商·周代 전세실물 상황표

시기	재료	길이	넓이	두께	색	비 고
商代	玉圭	30.6cm	7.2cm	1.25cm	다갈색	上部에 구멍. 일면에는 蟬文, 일면에는 鳥文, 구름문, 원형속에 '五福 五代'의 4자 조각.
周代	玉圭	24.6cm	6.9cm	1.22cm	회록색	상부에 구멍 2개, 머리쪽은 검정색, 아래 부분은 갈색, 일면에는 人面文, 일면에는 獸面文.
周代	玉圭	28.6cm	6cm		상아색	상부에 구멍, 일면에는 원형속에 '五福 五代 堂'의 5자 조각. 아래는 淸나라 고종의 御製詩가 조각.
西周代	玉圭	31.3cm	6cm			일면에는 人面文, 일면에는 원형속에 '五福 五代 堂'의 5자가 조각. 다른 면에는 청나라 고종의 '古稱天子寶' 및 '太上皇帝之寶'와 御製詩가 조각
전국시대	石圭	16	4			낙양시 출토
東周시대	石圭	21	4		회백색	3건 출토

*근거 : 고궁 박물관 소장, '玉器 選華' 참조 본인 작성

新, 舊唐書 여복지 소재, 唐代 品官者의 身分別 服色, 笏의 制도는 <표 2>와 같다.

<표 2> 唐代 品官者 별 常服 服色과 笏制 (典據: 新·舊唐書)

품급	服色	常服관모 (幘頭)	笏
1품	紫		象牙
2품	자		상아
3품	자		상아
4품	자		상아
5품	緋		상아
6품	비		상아
7품	綠		木
8품	록		목
9품	록		목
庶人	早·白		

4) 宋代

宋代는 文散官 6품 以上(紫, 緋色 袍 着用者)은 象牙笏, 9品 以上(綠袍 착용자)은 槐木笏을 들도록 規定 하였다. <도 16-19>는 섭송의의 三禮圖 소재 執笏圖이다.

宋代 이후, 笏의 使用 例를 '朱子語類'에 보면, "오늘날 笏은 예전에는 帶 사이에 꽂아 두던 것으로, 사람들이 사연을 적어두던 手板이었고, 오늘날 도 笏에 行禮時 사연을 적어두고 본다. 또 笏은 예전에 임금 앞에서 사연을 적어 둘때에 사용하기도 하면서, 行禮時 記事가 많으면, 笏의 面에 종이를 붙여서 頭序를 적어두기도 하였고, 임금 앞에서 다른사람을 가리킬 때 손으로 하지 않고 반드시 笏을 사용하여 가리켰는데, 이런 여러가지 目的으로 笏이 使用되었다"고 되어있다.

宋代 笏의 모양은 처음에는 길이가 짧고 두터웠으나 뒤에 (黃祐년간:1049-1053) 길고 얇아졌다.

<표 3> 송대 품관자 신분별 公服色과 笏 제도. (典據: 宋史).

품급	服色	公服冠 幘頭	笏
12.3.4	紫		象牙
5	淺緋		상아
6.7	深綠		竹木
8.9	深靑		竹木

<표 4> 遼國 관직자의 穿執(常服)色과 品級別 笏制度. 典據: 遼史

품계	1	2	3	4	5	6	7	8	9	비고
복색	紫			緋			綠			
笏	牙			木						

5) 明代

明代에 이르면, 制度를 新定하게 되는데,

황제 冕服用 圭는, 홍무 26년, 영락 3년, 가정 8년 定制가 같고, 圭의 명칭은 "鎮圭"였다. 재료는 白玉 이고, 크기는 1척 2촌, 表面에 山紋 4개를 彫刻 하였다. 손잡이 부분은 黃綺로 싸고, 황색의 金龍紋이 있는 錦織이나 綺로 만든 주머니에 넣어 보관했다.³¹⁾ <도 20-10, 11, 12, 13>.

황제 皮弁服用은, 영락 3년제가, 면복용 홍무 26년, 영락 3년, 가정 8년 定制의 圭와 같다.

황제 武弁服用 圭는, 가정 8년 定制가 면복에 드는 鎮圭와 차이가 적고, "射罪安民"이라 하는 4글자를 表面에 조각하였다.³²⁾ <도 2-7>, <표 7. 8>.

皇后는, 制度를 新定하는데, <大明會典>에 보면, 영락 3년제가, 그 명칭이 "穀圭"이며, 재료는 玉이고, 크기는 周尺으로 七寸크기이다. 圭의 表面에 穀紋이 彫刻되어있다. 손잡이 부분은 黃綺로 싸서, 황색의 金龍紋이 있는 錦織이나 綺로 만든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³³⁾ <도 5>, <표 9>.

皇妃는, 황후와 같으나 손잡이 싸는 재료나 笏袋의 재료가 "綺"가 아니고 "錦織"이다.

황태자는, 冕服用이 홍무 26년, 영락 3년 定制가 같고, 재료는 白玉이고, 크기는 9촌5分이다. 皮弁服用은, 영락 3년제가, 면복용 홍무 26년, 영락 3년제와 같다. <표 7. 8>.

皇太子妃는 홍무 26년, 영락 3년 定制가 같고, 재료는 白玉이고, 명칭은 玉穀圭 이고 크기는 7촌5分 크기이다. <표 8>.

親왕이 冕服用은, 홍무 26년, 영락 3년제가, 9촌 5분 크기이다.

親王妃용은 영락 3년제가 玉穀圭이며, 穀紋을 彫刻하고, 크기는 7촌크기 이다. <표 7>

群王용은, 영락 3년제가, 9촌 크기이고, 群王妃용은 永樂 3년제가 玉穀圭이며 穀紋이 조각하고 7촌 크기 이다. <표 8>

<표 5> 中國 古代 禮書類所在 圭·笏에 關한 資料

名稱	材料	크기 (周尺)	色	착용자 신분	紋飾	특징	넓이	두께	용도	典據
① 人圭	玉①②	3尺①③	白色	天子① 王③		終葵首 (6촌가량 머리부분 각자다)①			왕이 朝H에 허리에 꽂는다. 제후를 봉할 때 사용	주례도 심에서
② 介圭	玉	1尺2寸③		天子, 王	四麟山(山紋樣 4個彫刻)		3寸	0.5寸	왕이 朝H에 든다. 사신은 微守시 사용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③ 圭圭	玉	1尺2寸④		公	栗穀紋	위의 1.5寸정도 좌우를 깎는다. 끝이 뾰족하게 조각한다.			왕의 사신이 제후의 의행을 판단 하러 갈 때 든다.	왕의 사신이 제후의 의행을 판단 하러 갈 때 든다.
④ 穀圭	玉	10寸③⑤ 7寸⑤	黼黻色	王의 使臣	구름문				왕의 사신이 칙령의 목적, 왕의 사신이 남정시 사용.	왕의 사신이 칙령의 목적, 왕의 사신이 남정시 사용.
⑤ 球圭	玉	9寸⑤		古使		끝이 뾰족하다.			東力鵬를 기행시 사용.	東力鵬를 기행시 사용.
⑥ 珪圭	玉	9寸							제후가 왕을 알현시 든다	제후가 왕을 알현시 든다
⑦ 高圭	玉	9寸	정색						신중하게 행동하므로 保身의 의미	신중하게 행동하므로 保身의 의미
⑧ 圭圭	玉	8寸③		제후	머리와 몸체를 문식한 옥				왕의 禮를 갖추어 입을 때 사용.	왕의 禮를 갖추어 입을 때 사용.
⑨ 信圭	象牙	7寸		侯	人形 彫刻	위의 1.5寸정도 좌우를 깎는다.	3寸	0.5寸	해그림자나 土地를 재는데 쓰임.	해그림자나 土地를 재는데 쓰임.
⑩ 躬圭	象牙	7寸		伯	人形 彫刻	위의 1.5寸정도 좌우를 깎는다.	3寸	0.5寸		
⑪ 腎圭	玉	4寸, 5寸		子		力正하다				
⑫ 笏	竹			大夫	어수(魚須·상어의 수염)⑥					
⑬ 土圭	玉	1尺 5寸								
⑭ 麟圭	玉	길이 1尺, 20寸 두께 2尺							降神시 獻辭에 사용①	降神시 獻辭에 사용①

<표 6> 中國 宋代 着用者 身分에 따른 圭, 笏에 關한 資料

服名	착용자 신분	재료	명칭	모양	크기	문양 두께	손잡이		비고	전거
							색	문양		
① 無流冕人求服	· 天子, 上公	玉	· 笏	球(구)					조원상제, 五帝, 제사 신, 神에게 지낼 때 착용	① 고금도서집성
② 9류 衾冕服	· 왕의 上公①② · 왕태자 ③④ · 王太子 ③④ ·三公 ③	象牙②	· 圭 · 圭②③④	전술후지 (前屈後直)	2尺 6寸⑤ 9寸				· 천자를 조빙할 때 · 부제시 사용	① 산제도 ② 고금도서집성 ③ 예서 ④ 중서예복지 ⑤ 예기
③ 7류 冕冕복② 8류 冕冕복①	· 公② · 王의 三公①	象牙③	· 圭 · 圭①③④	9寸 ③ 7寸 ③	人形					① 예서 ② 고금도서집성 ③ 산제도
④ 7류 冕冕복 5류 衾冕服	· 伯① · 子	象牙③ 玉	· 圭 · 圭①③	7寸 ③	人形①					① 예서 ② 예서
⑤ 5류 衾冕服	· 男①	玉①	· 圭 · 圭①							① 예서
⑥ 4류 衾冕服①	· 왕의 三公의 孤 4命① · 九州 牧, 侯, 伯① · 王의 同姓 侯, 伯①	竹①	· 笏①			魚須紋②			· 왕의 제사를 도울 때 착용 ①	① 고금도서집성 ② 구름
⑧ 皮弁服	· 王의 親朋 · 王의 親朋服	竹本 象牙	· 笏							① 고금도서집성
⑨ 禮服	· 五品 이상① · 九品 이상①	象牙① 귀목①	· 笏① · 笏①							① 송사 여복지 ① "

<표 7> 중국 明代 圭, 笏 制度 (1)

服名	定制年度	착용자신분	재료	명칭	모양	크기(周尺)	문양	두께	손잡이			비고	典據
									색	재료	색		
면복	홍무 26년 정제	황제	白玉	鐙圭	刻上方	1尺 2寸	山紋 4개		(황)	(기)	(금)	周代 鐙圭를 따름	대명회진, 권지, 60, 예부 18.
	영락 3년 정제	"	白玉	玉圭	"	"	"	"	黃	錦	(금)		
	가정 8년 정제	"	白玉	白玉圭	"	"	"	"	"	錦	黃		
	정락 3년 정제	"	"	玉圭	刻上方	1尺 2寸	"	"	黃	錦	"		
무변복	가정 8년 정제	"	白玉	玉圭	刻上方	1尺 2寸	射罪安民		(")	(")	(")		
예복	영락 3년 정제	황후	白玉	玉黻圭	刻上	7寸	黻文		黃	綺	黃		
	가정 8년 정제	황후	白玉	玉黻圭	刻上	7寸	黻文		黃	綺	黃		
예복	가정 8년 정제	황비	玉	玉黻圭	"	7寸	黻文		(")	錦	(")		

*(-)안의 내용은 문헌기록에 보이지는 않으나 본인의 추정임.

<표 8> 중국 明代 圭, 笏 制度 (2)

服名	定制年度	착용자신분	재료	명칭	모양	크기(周尺)	문양	두께	손잡이			비고	典據
									색	재료	색		
면복	홍무 26년 정제	황태자	玉	玉圭		9寸 5分				(금)			
	영락 3년 정제	"	"	"		"				錦			
피변복	홍무 26년 정제	(")	(")	(")		(")				(")			
	영락 3년 정제	"	"	"		"				"			
예복	홍무 26년 정제	황태자비	玉	옥곡구 玉黻圭	(각상)	7촌 5분 7寸 5分				(")			
	영락 3년 정제	"	"	"	(각상)	7촌 5분 7寸 5分				(")			
면복	홍무 26년 정제	친왕	(")	(")		9寸 2.5分				(9촌 2.5분)			
	영락 3년 정제	"	"	"		"				錦			
피변복	영락 3년 정제	"	玉	玉圭		"				"			
	영락 3년 정제	"	玉	玉圭		"				"			
예복	영락 3년 정제	친왕비	玉	玉黻圭	刻上	7寸				"			
	영락 3년 정제	"	玉	玉黻圭	刻上	7寸				"			
면복	영락 3년 정제	군왕	玉	玉圭		9寸				錦			
	영락 3년 정제	"	玉	玉圭		9寸				"			
예복	영락 3년 정제	군왕비	玉	玉圭	(")	7寸 5分	黻文			"			
	영락 3년 정제	"	玉	玉圭	(")	7寸				錦			
면복	홍무 26년 정제	왕세자	靑玉	圭		7寸				"			
	영락 3년 정제	왕세자	靑玉	圭		7寸				"			
예복	홍무 26년 정제	왕세자비	靑玉	圭		7寸				"			
	영락 3년 정제	왕세자비	靑玉	圭		"				"			
면복	홍무 26년 정제	문무관	상아 五品이상 六品이하	笏	(원수방각)	(6촌 4분)							
	홍무 26년 정제	명부(命婦)	피복	笏	(")	(")							
예복	홍무 26년 정제	명부(命婦)	상아	笏	圓首方脚	6寸 4分		1.5寸					

*(-)안의 내용은 문헌기록에 보이지는 않으나 본인의 추정임.

대명회진, 권지, 60, 예부 18.

王世子는 靑玉圭를 드는데 홍무 26년, 영락 3년 制가, 7寸크기이고 王世子嬪도 같다.

文武官용은, 명칭이 笏이고, 홍무 26년제가 5품 이상은 象牙, 6품 이하가 木이다.

命婦는 象牙笏, 크기는 길이 6寸 4分, 두께 1寸 5分, '圓首方脚'型 이다.

6) 蘇藉(소자)와 笏囊·'笏袋'

玉器는 貴하게 여겼으므로 취급이나 保管에 신중 하였고, 禮器이므로 器物을 包裝하여 다루었으며, 여기에는 드는 사람의 신분과 玉器의 종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일정한 法度와 規式이 있었다.

즉 天子나 王이 손에 드는 圭. 笏인 鎮圭(鎮圭)는 五就라고 되어 있는³⁴⁾ 것을 보면, 초기에는 규, 홀의 손잡이 부분은 五彩組(五色으로 한줄씩 채색하여 만든 싸개로 중간을 묶어 주어서 손에서 미끄러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로 감아 주었거나, 또 '鎮圭를 예물로 사용시, 싸는 纁藉는 五彩五就³⁵⁾라 되어 있는 것을 보면, 保管時에나 禮物로 使用時에는, "五彩五就", 즉, 현, 황, 주, 백, 창 의 五色을 1줄씩 번갈아 가며 채색하여 만든 깔개를 깔고, 鎮圭를 그 위에 놓고, 玄纁 2색의 絢組(현조)로 묶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 20, 21>.

欽定 儀禮義疏에도 같다. "蘇藉 五彩五就"란 玉器를 싸는 玉보자기가 五色(현, 황, 주, 백, 창)으로 되어있다는 의미이며, 五就란 각각의 五色을 한줄

씩 玉보자기에 彩色한다는 의미로³⁶⁾, 싹때는 玉아래에 木板을 깔고, 얇은 가죽으로 된, '韋衣'인 보자기에 오색칠하여 꾸민, 玉보자기를 사용하여 싹다. 玉器 아래 놓는 木板 역시 크기와 모양이 鎮圭와 같다. 韋衣 위에는 그림으로 5采를 彩色한다. 묶는 끈은 玄組인데 玉을 싸서 묶는데 지장이 없고, 싹 玉이 잘못하여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넉넉하게 1척 크기였고, 묶는 끈만은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尊卑를 막론하고 5綵組를 썼다.³⁷⁾

이상과 같은 禮器를 빙예물이나, 納徵禮物로 사용하는 玉禮器를 소자로 싸는 외에, 천자이하 백관이 사용하는 규, 홀에 대하여서도 손에 쥐거나 帶에 끼우거나 保管時, 혹은 손에 질때라도, 손에 쥐는 부분을 천으로 싸서 쥐거나, 주머니를 만들어 넣어서 보관하는 "笏袋", 혹은 "笏囊"制가 있었다.

宋代 고승의 '事物起源'에 보면, '笏袋', '笏囊'에 대하여 ".....唐代 明皇 雜錄에 보면, 笏袋는 唐代에 장구령부터 시작된 것으로, 옛날에는 笏을 帶에 꽂은 다음 乘馬를 하였으나, 장구령이 笏囊을 만들어 그 안에 笏을 넣고, 부리는 사람에게 말(馬)앞에 매달아 두도록 시켰던 것이 笏囊의 시작이다."고 되어 있다.³⁸⁾ <通志>에는 "복사, 尙書가 手板(笏)을 紫色가죽 주머니에 넣어 지니던 것이 "笏袋"의 시작이다"고 되어 있다. 같은 典據에 "梁의 中世이래, 笏을 드는 사람은 모두 白箒을 머리에 부착한 자색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게 되어 있었다"고 되었다.³⁹⁾.

<표 9> 옥을 싸는 纁藉(소자) 사용 일람표

	纁藉	사용자 신분	구성	색상	크기	비고	전거
①天子	天子纁藉	天子, 王	5채5취 (五采五就)	현, 황, 주, 백, 창			① 주례 ② 예서 ③ 삼례도 ④ 삼제도회
②王	王纁藉	王	3채6취	주, 백, 창		납징예물 빙례시②	
③諸侯	諸侯纁藉(공후, 백)	諸侯	3채3취	주, 백, 창			
④제후	門諸侯纁	諸侯	2채2취	주, 록	玄纁(현훈) 8寸繫 1尺 絢組		
⑤제후	포곡(浦穀) 纁藉	子, 男	2채2취	주, 록			
⑥	圭璋 纁藉						
⑦	진규장벽종소 (瑑圭璋璧琮纁)		2채1취 ②				
천자	天子圭纁		3채6等	주, 백, 창			

이에서 보면, 笏은 南北朝代 백관들이 사용시에
는, 어떤 사실을 기록해서 笏板위에 붙여 두고 사용
하는 비망판이 되거나, 내용을 기록하는데 도움을
주는 板이 되어서, 그 이름이 일명, '손에 지나는 手
板'이 되고, 手板에 무엇을 적기에 편하도록, 당시의
筆記道具로서의 筆을 몸 가까이 지니되, 이를 冠
帽에 보관하는 것이 制度를 이루기도 하였던 것임
을 알수가 있다. <도 15>

또, <通雅 권 37>에는 "南朝 梁代 紫色의 가죽이
나 沙로 만든 주머니에 笏을 넣은 것이 "笏袋"의 시
작이다"고 되어 있다⁴⁰⁾.

3. 일본의 笏.

일본은 平安時代 中期, 5위이상의 品을 가진 사
람은 笏을 들도록 규정하는데⁴¹⁾ 이는 唐制를 답습
한 것이다.⁴²⁾ 朝服 착용시 허리에 끼우거나 손에
들어 威容을 갖추었다.

品官者는 <도 13>에 보는것과 같은 牙笏과 木笏
을사용 하였다.⁴³⁾

일본 宮内廳에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전세 실물
로 牙製와 骨製⁴⁴⁾, 木製, 3종이 있다.

<도 13-1. 2. 4> 이로 보면, 骨製 笏은 象牙製를
드는 신분계층과 竹,木製를 드는 계층 사이의 관직
자가 들었던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일본에서 笏의
사용은, 중국 남,북조시대 이후의 사용 예와 마찬가
지로 裏面에는 종이를 붙이고 비망 사항 등을 적어
두고,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다.⁴⁵⁾ 정창원
의 北倉, 牙笏 전세 유물은, 길이 1尺 1寸 3分, 넓이
1寸 6分(길이 34.9cm, 넓이 4.5-4.8cm) 크기이다.

<도 16>의 牙笏은 '通天牙笏'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 형태는, 위는 둥글고 손으로 쥐는 아랫부분은
네모(方形)이다. 넓이는 위·아래가 같다. 唐代에
天子용 홀은, 通天犀를 사용하였으며, 牙笏이 '通天'
이란 명칭을 갖게 된것은, '通天'이란 '通天犀'를 말
하는 것으로, 象牙의 색이 白色이며, 象牙에 나무결
의 線狀, 무늬가 있고, 광택을 발하는 "祥瑞로운 犀
角"의 의미가 있는데 '上質의 象牙'라는 의미로 붙
여진 이름이다. 전세 실물은, 聖武(724-749)天皇의
牙笏로 위가 약간 둥글고, 길이 38.8, 넓이 5.2-5.4,

두께 1.3-14센티 크기이다⁴⁶⁾.

<표 10> 일본 養老(718)衣服令을 통해서 본 文官 執笏 내
용(典據: 속일본기)

職位	衣服色	腰帶	笏	비 고
황태자	黃丹衣	白帶	牙笏	
친왕	深紫衣	條帶	아홀	帶는 雜色으로 ړ어 만든.
諸王 1위	"	"	"	"
2위이하 5위이상	"	"	"	"
諸臣 3위이상	淺紫衣	"	"	"
4위이상	深緋衣	"	"	"
5위이상	淺緋衣	"	"	"

4. 우리나라의 圭·笏

가. 고구려

史料에서 高句麗의 百官이 執笏한 기록은 찾기 어
려우나, 古墳壁畫상으로 보면, 357년 4세기 중엽의
벽화인, 안악 3호묘 주인공 옆의 남·녀 侍從들이 笏
을 들고 있어서,⁴⁷⁾ 笏의 사용 예를 확인 할 수가 있
다. 북한의 학자인 주현영도 본인과 견해가 같다.⁴⁸⁾

나. 백제

史料상으로는 百濟의 百官이 執笏한 기록은 찾기
어려우나, 古新羅가 법흥왕(514-536)대 처음으로 骨
品制度를 基盤으로 한 백관의 公服制度를 제정하고,
執笏하는 제도를 상정하였다. 당시 三國중에서 가장
낙후하였고, 고구려나 백제를 통하여 중국의 문물을
받아드리고 있었던 古新羅의 服制에 執笏제도가 포
함된 것을 보면, 백제나 고구려의 복제에도 4세기 이
후에는 포함되어 제도를 이루었을 것이나, 史料상의
缺失을 이유로 百濟의 笏制가 없었던 것으로 단정을
짓는 것은 옳지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후속자료의 보
완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 古新羅

古新羅는 23대 법흥왕(514-536)대 처음으로 骨
品制度를 基盤으로 한 백관의 公服制度를 제정하
는데, <표 11>과 같다⁴⁹⁾. 여기보면, 紫色服과 緋色服을
입는 9품계 이상의 관직자가 象牙笏을 든다. 그 이

<표 11> 古新羅의 笏制.

품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복색	자색					비색					청		황				
홀	象牙笏									木(?)							

하는 명시된 자료가 없으나, 木笏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渤海

渤海는 文王 대금부 시기에 唐의 開元禮를 수용 백관의 公服制度를 제정하였다. <표 12>와 같다⁵⁰⁾. 여기서 보면, 紫色服과 緋色服을 입는 5품계 이상의 관직자가 象牙笏을 들고 그 이하는 木笏을 들었다. 홀의 모양은 唐의 開元禮를 따랐으므로, 開元禮制를 보면,

開元 8年 9月 以後 3품 以上者는 前掘後直, 5품 이상자는 “전굴 後挫”의 모양에 象牙로 만들고, 9품 以上은 竹, 木으로 만들되 모양은 “上挫 下方”으로 規定하고 執笏하도록 하였다.

<표 12> 北國 渤海 관직자의 品級別 笏 制度

품계	1	2	3	4	5	6	7	8	9
복색	紫			緋			친비		록
笏	牙					木			

마. 統一(南國)新羅

古新羅 法興王代에 詳定制는, 진덕여왕대 唐制衣冠을 수용, 唐制를 正式으로 踏襲한 이후, 職制의 改編, 職級에 따른, 복색의 변화와 의복의 구성과 形制의 變化는 있었을 것이나, 복두, 단령의에 속대, 화를 착용하고, 魚袋를 패용하고, 執笏 한 것은 唐의 제도와 동일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바. 高麗.

고려시대 國王의 경우, 高麗史 여복지 王 冠服條에 보면,

“...문종 9년, 거란 主가 “...賜冠服 圭”라 되어있고, ...문종 19년, 遼主가 “...賜冠服 玉圭”라 있고, ...선종 2년, 숙종2년, 遼主가 “...賜 冠冕章服 圭”라 있고, “..인종 20년, 명종20년, 金主가 “...賜冠服 玉圭”라 있다.⁵¹⁾ 이로 보면, 고려의 국왕이 거란이나

遼, 金으로부터 보내온 冕旒冠 服制에 圭를 들었음을 알수 있다.

高麗圖經에는, 왕이 冕旒冠制의 祭服 착용시 “玉圭”를 들고, 公服 着用時에는 象牙制의 笏을 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는 高麗가 北宋, 遼와 교류당시, 遼에서 보낸 冕旒冠服制에 준할 경우, 玉圭制이므로, 그에 준한 圭制를 고려에 賜與하여 왕은 玉圭를 갖고 있었고, 宋史 여복지에 보면, <표 6>참고, 宋帝가 王에게 公服賜與시 賜與한 象牙製의 笏은, 自國의 9류 冕旒冠服 착용자가 드는 笏의 材料가 象牙製였으므로, 고려의 왕은 이에 준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宋의 使臣인 서공의 高麗圖經에는 당시 국왕의 圭.笏에 대한, 遼朝賜與 玉製의 圭와 宋朝賜與 象牙制의 笏, 2種의 制度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공민왕 19년, 明의 太祖 高皇帝가 “...賜 冕服 圭 九寸”라 되어 있어서, 明의 太祖가 공민왕에게 보낸 圭는 치수까지 명시되어 있어서 九寸크기 임도 알수 있다.⁵²⁾

관직자의 경우,

대조 1년, 팔관회시 관원들이 袍笏을 갖추고 行禮하였다⁵³⁾는 기록으로 보아서 笏을 들었음을 알수가 있다. 또, 고려사 여복지, 관복 長吏 公服조에 보면, 顯宗代 州府郡縣 長吏의 公服을 제정하였는데, 州府郡縣의 戶長은 “...紫衫, ...緋衫...綠衫에 靴를 신고 笏을 든다...”고 되어있고, 州府郡縣의 吏는 靑衫, 兵倉吏, 諸糧吏는 天碧衫에 화를 신지 못하고 笏도 들수 없다고 規定한 것이 보이며⁵⁴⁾, 의종대 상정제에는, 紫, 緋色服 착용자는 象牙笏을 들고, 綠色服 착용자는 木笏을 들며, 모양은 위가 뾰족하고 아래가 네모지게 되어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고려시대에 백관이 들었던 笏의 모양까지 알수가 있다.⁵⁵⁾

또 高麗史 여복지에는, 공민왕 21년 11월 教旨에, 象牙 笏을 들고 紅靸, 早靸 革帶를 한 納羅 朝服

을 착용하는 관직자들은 朝服의 材料인 綃羅가 本國產이 아니므로 이후부터는 모두 侍臣을 제외하고 東西班 모두 5품 이하는 木笏에 角帶를 하고 紬, 紵, 紵絲로 만든 조복을 입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⁵⁵⁾, 5품 이하가 다시 木笏을 들도록 바뀌게 됨을 알 수 있다. 사료를 근거하여 고려시대 圭, 笏制를 表로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고려도경' 근거, 고려백관의 公服色과 笏制.

직품	의복색	대	笏	품계
령관	紫紋羅袍	옥대	상아	正 1품
국상	"	구문금대	"	중 1품, 정 3품
근시	"	"	"	3.4품
세자 왕의 형제 종친	"	어선금대	"	중 3.4품
향감	緋문라포	홍정서대		정 5품
조관	"	흑정각대	"	5. 6품
서관	綠衣	조정각대	木笏	7.8.9 품

<표 14> "의종조 상정" 고려백관의 公服色과 笏制 .

職 品	服 色	帶	笏
문관 4품 이상	紫衫	통서대, 금옥 반서대	상아
공, 후, 백, 諸臣, 내시다방	"	금옥 반서대, 방안 구로대	"
좌우 상시, 어사대부, 한림학사, 승지, 侍臣 3품 이상, 武官 상장군 이상	"	금 반서대	"
문무 3품, 시신, 급사중승	"	반서 금도은대	"
상참 6품 이상	緋衫		"
문무 4품 이하 상참관	"	서대 착용 불허	"
9품 이상	綠衫	"	木笏
무신	紫衫	"	"

사. 朝鮮이후 국말(大韓帝國)까지의 규.홀

1) 國初.

조선의 경우, 초기에 제정된 것이 말기까지 계속 되다가, 26대 고종 제위 34년(1897) 8월 국호를 '大韓'으로 바꾸고, 皇帝格의 圭를 들게 된다.⁵⁷⁾

<국조 오례의>나 <국조오례의 서례> 규정을 보면, 왕, 왕비, 세자, 세자빈이 드는 禮器는, 그 명칭이 "圭"이며, 백관용은 그 명칭이 "笏"이다.

王은 靑玉圭(이는 우리나라가 東方國이므로 그에서 東方의 색인 靑色을 따른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로 크기가 9寸, 왕세자는 왕에 비하여, 재료와 색은 동일하나 크기는 7寸 크기이다. 이를 <大明會典>에 준하여 보면, 왕은 明의 群王禮를 따르되, 明의 群王이 白玉圭, 우리나라 왕이 靑玉圭 사용으로 색상면에서 차이가 있고, 크기는 동일하다. 왕세자는 明의 왕세자의 예를 따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明의 定陵 출토 실물로 보는 것과 같이 조선도 국왕 장례용으로 圭를 사용하였다.

조선의 경우, 復玩⁵⁸⁾되어 사용하였는데, 國朝五禮儀 규정에 보면, 玉으로 만들되, 길이 5치, 너비 2치 크기로, 복완하고, 주머니는 걸 靑苧紗, 안 纁綃로 만들되 치수는 길이 7치, 너비 2치 크기이다. 이는 평상시 사용하던 실물의 半크기였다.⁵⁹⁾

2) 중·후기 英,正祖代

英祖의 <國葬都監儀軌>에서 보면, 葬禮服 圭는 碧玉으로 만들고 紅色 熟綃로 만든 주머니에 넣었으며, 영조이후 홍색주머니에 넣었다.⁶⁰⁾ 그러나 백옥제의 실물크기용 圭가 출토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서 規定은 이와 같되 경우와 여건에 따른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正祖代, <景慕宮儀軌>의 규정을 보면, 國王용 圭는 靑玉圭로 크기가 9寸이며 升龍紋 2개가 조각 되어있다. 이를 大明會典에 준하여 보면, 국왕은 明의 영락 3년 定制의 群王禮를 따르되, 明의 群王이 白玉圭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의 국왕이 靑玉圭 사용하는 것은 재료면에서 차이가 나나, 크기는 동일하다.

<景慕宮儀軌>에서, 세자는 청옥규를 들고 재료와 크기는 왕과 동일하나 無紋이다. 大明會典에 준하

여 보면, 세자는 明의 세자의 禮를 따르지 않고 群王禮를 따라서 왕과 동일 크기이되 升龍紋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5> 조선조 <嘉禮部監 儀軌>에 나타난 王妃의 圭 현황.

왕 후	규의 종류	크기	비고
인조 장렬후(1638)	청옥규	(9촌)	大紅匹緞匣具
숙종 인현후(1681)	백옥규	(#)	"
순조 순원후(1802)	"	(#)	(#)
헌종 효원후(1837)	"	(#)	(#)
헌종 효정후(1844)	"	(#)	(#)
철종 철인후(1851)	"	(#)	(#)
고종 명성후(1916)	"	(#)	(#)

*(#)내의 기사는 연구자의 추정임.

<표 16> 조선조 <嘉禮部監 儀軌>에 나타난 王世子嬪의 圭 현황.

왕세자빈	규의 종류	크기	비고
경종 선자후(1718)	청옥규	(7촌)	(청색匹緞匣具)
진종 효순후(1727)	청옥규	(#)	"
문조 신정후(1819)	"	(#)	(#)
순종 순명후(1882)	"	(#)	(#)

*(#)내의 기사는 연구자의 추정임.

위의 <표15>에서 보면, 仁祖代까지는 왕이 明의 群王禮에 준하여 왕비가 청옥규를 사용하나, 숙종대 이후 왕비는 白玉을 사용하고 착용하는 예복의 복색인 大紅色에 맞추어 대홍색의 匣에 圭를 보관한다. 왕세자빈은 靑玉으로 만든 圭와 청색의 禮服에 맞추어 靑色緞으로 만든 匣에 보관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續 五禮儀>의 규정을 보면, 王妃는 왕과 동일하게 白玉을 사용하고, 王世子嬪은 靑玉을 사용하였다.

3) 國末.

국말, 大韓帝國 시대의 <大韓禮典>을 보면, 황제용은 白玉으로 만들고, 그 명칭이 “鐵圭”로 크기가 1척 2寸이며, 山紋이 조각되어 있다. 황후용은 <大明會典>에 준하여 보면,

홍무 26년, 영락 3년제에, <皇后玉穀圭長七寸周尺刻其上緣穀紋黃綺約下別以黃袋韜之金龍文.>라 되어 있어 황제의 제도보다 5분이 크기면에서 작다. 재료나 새기는 문양 등은 明의 皇后의 制度와 동일

하였을 것으로 보아, 황후는 황제와 같이 백옥으로 만든 ‘玉穀圭’이며 표면에 穀紋이 새겨져 있고, 크기는 7촌이며, 黃色의 錦이나 緞으로 손잡이 부분을 썼을 것으로 보인다. 明代에 이르러 황색의 錦緞, 綺로 圭의 손잡이 부분을 감싸는 것이 제도를 이루고, 별도로 黃色의 金龍紋이 있는 錦緞 등의 직물이나 綺로 만든 주머니에 넣어 보관 하는 것이 法制化 된다. 皇妃용도 황후와 같으나 손잡이를 싸는 재료나 笏袋의 재료가 “綺”가 아니고 “錦”織이다.

황태자용은 <大韓禮典>에 규정이 없다. 大明會典에 준하여 보면 홍무 26년제, 영락 3년제가, 황제의 제도보다 2.5-3분이 크기가 작다. 황태자는 황제와 같이 백옥으로 만들고, 그 명칭이 ‘백옥규’이며, 크기는 明의 황태자의 제도와 동일하였을 것으로, 9.5분 혹은 9분 크기이며, 紅色의 錦이나 緞으로 손잡이 부분을 썼을 것으로 생각된다.

<大韓禮典>에 보면, 皇太子妃용은 그 명칭이 ‘옥곡규’이며, 표면에 穀紋을 彫刻하고, 크기는 7촌이다. 錦으로 손잡이 부분을 썼다. 大明會典에 준하여 보면, 홍무 26년제, 영락 3년제에 비하여, 5분이 작고, 재료나 새기는 문양 등은 明의 制度와 동일하다.

英親王妃의 전세실물 2종이 있다.

1種은 妃가 1922년 순종 알현시, 皇太子妃로서 입었던 翟衣용 玉穀圭로 길이 14.5cm, 나비 4.5cm 크기 白玉製로 문헌기록과 같다. 穀紋을 새겼고 하단을 5.4cm 정도를 홍색 문단으로 썼다. 그리고 홍색 緞으로 된 주머니인 도(韜)에 보관하는데 상부에 단추를 달아 여밀수 있게 하였다.

<大韓禮典>의 皇太子妃용은 “玉穀圭”이고, 크기는 周尺으로 7尺, 규의 표면 위에는 곡문을 새겼고 黃色綺로 아래를 썼고, 보관시에는 金龍紋이 있는 黃袋韜에 보관한다. 기록과 전세 실유물과는 손잡이를 싸는 직물의 색이 다르다.

1種은 名稱이 “靑玉圭”로 紅色緞으로 손잡이 部分을 싸고 紅色袋韜에 保管한다. 7척 크기 靑玉으로 만든 圭에 紅色緞으로 손잡이 部分을 싼 것은 <大明禮典>에 準하여 보면, 英王妃가 王世子嬪 時節에 使用 하였던 것이다.

<大韓禮典>의 規定中 文武官이 드는 것은 名稱이 笏이고, 4品 以上은 笏의 材料가 象牙이고, 5품 以

<표 17> 朝鮮以後 國末까지(大韓帝國) 우리나라 圭, 笏에 關한 資料

대한 예전	着用者身分	材料	名稱	모양	크기	문양	두께	손잡이		袋		비고	진거
								재료	색	문양	색		
國朝五禮儀	國王	玉	白玉圭		(9촌)								
	王妃	玉	白玉圭		(7촌)								
	王世子	玉	青玉圭		(9촌)								
	王世子嬪	玉	青玉圭		(7촌)								
	文武官	象牙 木笏	象牙 木笏										
景慕宮儀軌 (英正租代)	國王	青玉	青玉圭		9寸	송용문 2개		(緋.緞)	(홍)				
	王妃	()	()		(7촌?)			()	()				
	王世子	青玉	青玉圭		9寸	무문		()	()				
	王世子嬪	()	()		(7촌?)	()		()	()				
	文武官	象牙, 槐木	象牙, 木笏					(紗)	(靑.靑)				
대한 예전	皇帝	白玉	(緋)圭		1척2촌	山紋		기	황	금	황		
	皇后	白玉	(靑)圭		(7촌)	(국문)		()	()	()	()		
	皇太子	白玉	白玉圭		(9촌5분-9분)			(금.단)	(홍)				
	皇太子妃	**白玉 *青玉	**白玉圭 *青玉圭		7寸(14.5cm)	국문		**錦 *緞	*홍 *청	**금 *단			*영왕비진세실물 **대한예전
	文武官	象牙, 木	象牙, 木 (4품이상 상아, 5품이하 목)		*24cm(진세실물)			*紗	*청				

*(-)안의 내용은 文獻記錄에 보이지는 않으나 本人의 推定임.

<표 18> 조선 후기 규, 홀의 진세실유물 사항표

연대	크기	넓이	위	아래	재료	소유자	손잡이 부분길이	모양	소장처	비고
1815-1850	50.5	6.4			상아			아래는 방형 위는 동글고, 휘어짐	숙명여대 박물관	
조선 후기	34.3	4.8			상아		암청색비단손잡이		호암미술관	
조선 후기	23.4		3.5	4.3	상아		청색 비단손잡이	위는 동글고, 아래는 방형. 직선	한양대박물관	
조선 후기	24		4	5	상아		6. 청색비단손잡이	"	해인사소장	
조선 후기					상아	심동신	청색 비단손잡이	"	서주신박물관소장	민속자료 2호
조선 후기					상아	정원용	청색비단손잡이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민속자료 13호
조선 후기		27	4	5	상아	이형장	6. 청색비단손잡이	"	서주신박물관소장	민속자료 119호
대한제국말	14.5		4.5	6	백옥	황태자비	5.4.홍색비단장식	위.아래가 모지고 紋紋	광주유물관	
대한제국말	17.2		4	4.2	청옥	영왕비	6.홍색비단장식	위.아래가 모짐(方形)	광주유물관	

下가 木을 材料로 使用하였다. <표 19>에서 前世實物상으로 조선 후기의 笏의 치수를 보면, 1750(영조 26년)년대 笏의 크기는, 치수와 연대 설정이 분명한 유품이라면, 25센티부터 43센티 크기로, 크기가 다양하며, 평균 길이는 30센티 크기로, 나비는 4.5부터 7센티 크기로, 평균 5.1센티가 된다. 이는 당시(英祖代) 새로 禮制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尺度의 다양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50년 뒤, 1800년대 笏의 크기는, 25센티부터 29센티 크기로, 비교적 차이가 적다. 나비는 4.5부터 5.2센티 크기로이다.

<표 19> 석주선 박물관 소장 전세 실물의 크기 일람표

유 물 번 호	연 대	크 기(cm)
0368	1750	길이 26.5 폭 5
0713	1750	" 26 " 4.5
959	1750	" 25.5 " 4.5
0979	1750	" 26.5 " 4.5
1361	1750	" 32 " 4.5
1364	1750	" 26.5 " 4.5
2296	1750	" 27 " 5
2464	1750	" 38.5 " 6.5
2465	1750	" 43 " 7
0470	1800	" 27.5 " 5
0471	1800	" 27.5 " 5
0177	1800	" 25 " 4.5
1362	1800	" 29 " 5.2
1367	1800	" 29 " 5.2
2974	1820	" 19 " 4.2
1078	1850	" 24.5 " 5
2410	1900	" 26.5 " 4.5

근거: 석주선박물관 소장품 도록집

결 론

1. 周禮에 보면, 玉재료로 만든, 길고, 둥글고, 네모나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瑞玉을 다듬어서 하늘과 땅, 사방 산천과 바다 등에 제사 지낼 때, 天子이하 신분에 따라서 형태나 재료, 색에 구분을 두고 玉으로 만든 예물을 사용하였다. 또 천자나 제후들이 婚禮시 남정예물로도 玉을 사용하였다.

2. 玉은 貴하게 다루어지는 예물이었으므로 纁藉

라고 하는 玉 아래 까는 물건으로 싸주었다. "소자"도 사용자와 玉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 天子는 五彩(현, 황, 홍, 백, 창)五就의 韋衣로, 諸侯는 삼채(주, 백, 창) 삼취로, 자, 남은 이채(주, 록)재취로 하였다. 즉 천자는 五彩五就라하여 오색으로 한줄씩 꾸미고 현, 혼색의 組가 부착된 끈으로 묶어주었다. 諸侯는 三彩三就, 二彩이취, 二彩일취라 하여 신분에 따라서 각각의 許容色으로 싸주었다.

3. 南朝 梁代에 이르러, 말을 타거나 하는 경우, 笏을 손에 지니기가 불편하여지자, 집어 넣어서 허리옆에 패용하는 제도에서 시작된, "笏袋"의 제도는, 明代에 이르러서 예복을 입고 손에 드는 笏, 笏을 보관하는 경우에 笏, 笏의 보관용 匣으로 바뀌었고, 손에 드는 경우, 손잡이 부분을 싸서 쥐는 제도가 생겨나면서, 착용예복과 동일 복색으로 손잡이 부분을 싸주고, 綺나 緞, 紗등으로 신분에 따라서 圭, 笏의 아래부분, 손으로 쥐는 부분을 싸주는 제도로 발전한다.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保管匣에 넣어 주는것이 제도를 이루게 된다.

4. 西魏이후부터 笏, 笏을 만드는 재료를 5품 이상은 象牙, 6품 이하는 竹, 木을 병용하였다. 後周 보정 4년, 백관이 笏을 들기 시작한 이후, 內外命婦도 남편의 품급에 따른 笏을 들게 하였다. 이후 중국측 왕조별로 제도를 형성, 우리나라의 경우, 明朝 賜與 왕비 禮服속에 포함되었으므로, 命婦가 圭, 笏을 드는 제도는 조선초기 이후부터 史料에 나타난다.

5. 우리나라의 경우,

- 고구려는 357년 銘의 안악 3호묘에 주인공의 남녀 侍從이 백색의 象牙로 추정되는 笏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笏을 사용하였음을 알수 있다.

- 백제는 史料에는 보이지 않으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아 사용 가능성은 있으나 後日의 研究로 미룬다.

- 古 신라는 법흥왕대 백관이 公服착용시 牙笏을 들게 하였다.

- 統一(南國)新羅는 진덕여왕대 唐制衣冠을 수용하여 백관이 公服착용시 牙, 木笏을 들게 하였다.

- 渤海는 唐의 玄宗대의 開元禮를 받아 드려서 象牙, 木笏을 들었다.

- 高麗는 왕이 玉笏과 牙笏을 같이 드는데, 이는

宋,遼,金朝 등이, 우리 왕에게 禮服 賜與 당시, 우리 나라에 대한 상대방 朝廷의 품급에 대한 배려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高麗百官은 신분에 따라 牙笏과 木笏을 들었다.

• 삼국시대이후, 북, 남국(統一)新羅, 高麗時代까지는 國王이하 백관 圭,笏의 모양은, 唐制를 따라 위가 둥글고 아래가 方形이었으며, 신분에 따라서 명칭(우리 나라는, 왕이 드는 경우, 그 명칭은 “圭,笏” 이 같이 사용되었다. 일본은 “홀”로 사용됨)과 재료(玉, 象牙와 木, 일본은 牙, 木외에 骨이 포함됨)와 크기와 色에서 차이가 있었다.

삼국이후 고려시대 까지 손잡이 부분을 싸준 材質이나, 保管상자나 주머니 등의 服色에 대한 史料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손잡이 부분을 싸줄 경우, 禮服의 服色과 同一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 조선시대의 경우, 明의 賜與制度에 準하였으므로 재료는 <國朝五禮儀>의 규정에 보면, 신분에 따라서, 玉(국왕:백색, 벽색, 청색), 象牙, 木笏을 들었다. 명칭은 왕이 들 경우, ‘圭’, 백관용은 ‘笏’이라 하였다. 모양은 국왕은 위를 깎아주고, 아래는 方形이며, 백관은 위를 둥글리고 아래는 方形이다. 三國이래 高麗시대까지의 臣下用이 위가 角이지고, 아래도 모가지는 方形의 모양과 다르다. 치수는 時期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사용자의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明代 1尺의 길이는 평균 30cm정도로 본다면, 조선시대 왕의 圭는 크기가 9寸이니까, 27cm크기 정도이며, 청옥으로 만들었고, 왕비는 21cm, 왕세자는 왕과, 세자빈은, 왕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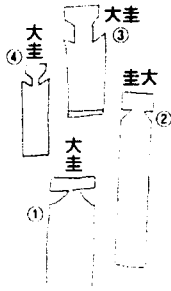
• 조선시대 후기 백관의 笏은, 前世 遺物상으로 보면, 길이가 25-43cm정도의 크기에, 위가 아랫 너비보다 좁은 경우, 아래가 윗 너비보다 좁은 경우, 뒤로 굽어(휘어)진 경우,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서, 國末에 이르면 제도가 무시되고, 기강의 혼란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근거가 없는 유물이 前世되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前世遺物은 대개 靑色禮服착용 品官者가 들수 있는 牙笏이었으므로 靑, 暗靑色의 비단으로 손잡이 부분을 감쌌다.

• 조선이후 大韓帝國시, 황제나 황후용 圭의 손잡이 부분 싸개는, 착용 예복색과 동일하게 黃色으로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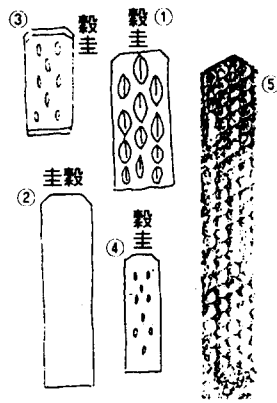
참고문헌

- 1) “鐵圭(천자, 왕 등이 드는 玉禮器 명칭)”, “恒圭(公爵 등이 드는 玉禮器 명칭)”, “信圭(후작 등이 드는 玉禮器 명칭)”, “躬圭(백작 등이 드는 玉禮器 명칭)” 등이다.
- 2) 璧은 둥근 玉이고, 2종 璧은, “곡벽(子爵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옥)”, “포벽(男爵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옥)”이며, 신분을 구분하여 들었으며, 모양과 크기는 같으나 문양으로 구분하였다.
- 3) 璋은 반쪽 모양의 笏이다.
- 4) 六器는 蒼璧, 黃琮, 青圭, 赤璋, 白琥, 玄璜을 말한다.
- 5) ‘蒼벽’의 ‘蒼(蒼)’은 ‘푸른 창공의 색’을 의미하였다. 圓徑은 9촌, 구멍은 3촌 크기이다. 삼제도회.
- 6) “琮”은 地神에게 예를 올릴 때 쓰는 玉으로, 종에는 대종(12寸 크기), 황종(每刻은 1촌 6분 크기, 길이 8촌, 두께 0.5촌 크기), 전종, 조종, 邊宗 등이 있다. ‘황종’의 “황(黃)”은 중국의 ‘大地의 색깔인 황토색’을 의미하였다. 삼제도회.
- 7) 백호는 호랑이가 엮데어 있는 모양을 조각한다. 길이 9촌, 넓이 5촌 크기이다.
- 8) 고궁박물관, 古官所藏 玉器 選華, 대북, 고궁박물관, 1970. 도판.
- 9) 漢代에 “笏”이라고 하던 것은, 漢代 以後, 6朝 以後부터는 “手板”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笏’은 “朝笏” 혹은 “笏板” “手板”이라고도 하였는데, 百官이나 侍臣이 帝王 朝見時 반드시 手中에 지녀야 하였던 板을 말하였다.
- 10) 정 : 일명 大圭. 모양은 方正 하다. 天下가 方正 하기 때문이라는 意味이다.
- 11) 茶는 諸侯가 갖는 笏의 이름이다. “茶(도)”는 古代의 “舒(서)”字 인데 玉모양의 “上圓 下方”의 意味를 갖는다. 모양은 앞(위)이 둥글고 아래가 方正하여 모가 진다.
- 12) 권오돈역, 禮記, 흥신문화사, 1993, 278.
- 13) 바로앞책, 214.
- 14) 권오돈역, 앞책, 278.
- 15) 바로앞책, 236.
- 16) 바로앞책, 287.
- 17) 바로앞책, 277-278.
- 18) 士가 갖는 대나무로 만들고 아래를 상아로 장식한 笏을 말한다. 권오돈역, 앞책, 275.
- 19) 禮記에 ‘大圭는 天子가 使用하는데, 解釋에 보면, ‘國王이 帶에 劔처럼 차는 玉이 ‘大圭’ 라고 되어있다’ 바로앞책, 324. ‘大圭’ 는 일명 ‘珽’이라고도 한다.
- 20) 1尺은 오늘날의 指尺인데, 오승락은 진규, 항규 등의 전세실물을 실측하여 19,778센티의 周尺의 치수를 산출하고, 周代에 사용한 척도는 1척이 19,50센티와 19,778센티 크기 인것으로 계산 해냈다. 오승락저, 中國度量衡史, 이로 보면, 周代 1尺은 약 20센티 가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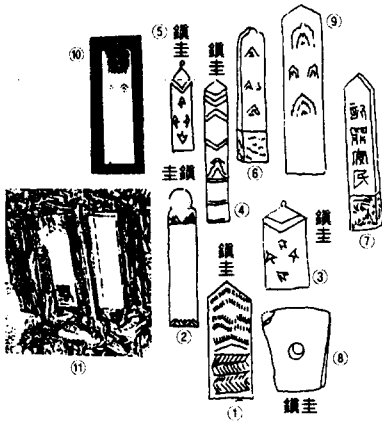
- 로 天子의 圭가 3척이라던, 60센티 크기이다.
- 21) 納徵禮物로 쓰는 玄色과 纁色 2種의 비단을 묶어서 보내는 외에, 穀圭를 納徵禮物로 使用時, 穀圭의 크기에 대하여, 송대 섭승의의 三禮圖에는 7치라 되어 있고, 周禮에는 10치(20센티) 크기로 되어 있다.
 - 22) 聶崇義, 三禮圖, 上海 同文書局 石印.
 - 23) 張三植, 大韓漢辭典, 집문당, 1983, 921.
 - 24) 周禮.
 - 25) 섭승의 앞책.
 - 26) 왕기, 삼제도회.
 - 27) '釋名'에, "笏"은 "忽"이라고도 하는데, 笏板 위에 어떤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적어두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혹은 "簿(부)"라고 하였다고 되어있다.
 - 28) 晉書, 여복지.
 - 29) 新, 舊 唐書, 여복지.
 - 30) 唐會要 여복, 下.
 - 31) 大明會典, 권 60, 예부18, 관복, 1.
 - 32) 바로앞책, 동면.
 - 33) 皇后玉穀圭長七寸周尺刻其上緣穀紋黃綺約下別以黃袋韜之金龍文.
 - 34) 섭승의, 앞책.
 - 35) 바로앞책.
 - 36) 欽定 儀禮義疏.
 - 37) 바로앞책.
 - 38) 주신, 고춘명, 1996, 앞책, 456.
 - 39) 바로앞책, 458.
 - 40) 바로앞책 동면.
 - 41) 日野西姿孝編, 日本의 美術, No.26, 服飾編, 소화 43, 39.
 - 42) 나라 국립박물관, 제 44회 正倉院展, 1992, 21.
 - 43) 日野西姿孝編, 日本의 美術, No.26, 服飾編, 소화 43, 39.
 - 44) 고고건자, 일본 역세복식도설, 89.
 - 45) 나라 국립박물관, 제 44회 正倉院展, 1992, 21.
 - 46) 나라 국립박물관, 제 44회 正倉院展, 1992, 21. : 이자연역, 일본 복식사, 경춘사, 1999, 40.
 - 47) 조선화보사, 고구려 고분의 벽화, 1986, 도판 2.
 - 48) 조선화보사, 고구려 고분의 벽화, 1986, 주요 고구려 벽화의 주인공 무덤에 대하여, 10.
 - 49) 임명미, 한국의 복식문화, 1, 경춘사, 1996, 154.
 - 50) 바로앞책, 517.
 - 51) 高麗史 여복지 王 冠服條
 - 52) 바로앞책, 동면.
 - 53) 고려사 절요, 제 5권, 태조 1년.
 - 54) 고려사 권 72, 지26, 여복1, 관복, 장리 공복조.
 - 55) 고려사 권 72, 지26, 여복1, 冠服, 公服조凡笏服紫緋者以象服綠者以木其制上挫下方...
 - 56) 고려사 권 72, 지26, 여복1, 冠服, 朝服조凡象笏 紅鞵, 早鞵 綃羅 朝服皆非本國之產今後侍臣外東西班5品以下用木笏角帶紬紵朝服.
 - 57) 증보문헌비고 권79, 예고, 26, 장복 1.
 - 58) '복완'이란 장례용으로 평상시 사용하던 것과 달리 크기를, 圭의 경우, 5/1 크기로 축소하여, 형식적으로 사용하였던 禮物을 말한다.
 - 59) 김명숙, 면복에 대한 고찰, 이대 석사학위논문, 1983, 34.
 - 60) 바로앞책,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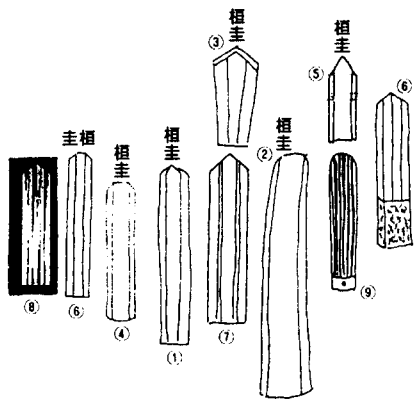
<도 1> 禮書類 소재, 大圭의 종류.
 1. 대규(3尺), 주례.
 2. 대규. 삼례도, 흥정의례의소.
 3. 대규. 오례경해.
 4. 대규. 삼제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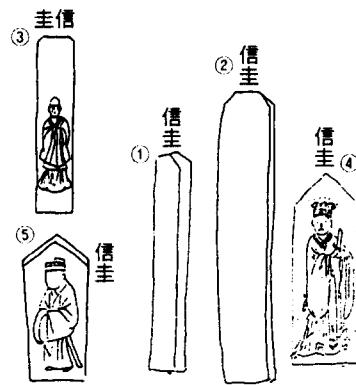
<도 3> 禮書類 소재, 穀圭의 종류.
 1. 곡규(10寸). 주례.
 2. 곡규. 삼례도.
 3. 곡규. 오례경해.
 4. 곡규. 삼제도회.
 5. 명대 정능 출토 穀圭 실물



<도 2> 禮書類 소재, 鎮圭의 종류.
 1. 진규. 주례. 2. 진규. 삼례도.
 3. 진규. 오례경해. 4. 진규. 오례경해.
 5. 진규. 예서. 6. 진규. 삼제도회.
 7. 진규. 대명회전.
 8. 진규. 전세실물 삼도, 고궁 박물관소장.
 9. 定陵출토 진규, 전세실물 삼도, 이택봉의, 앞책, 21.
 10. 명대 定陵 출토 鎮圭 전세 실물.
 11. 명대 定陵 출토 鎮圭와 恒圭의 陵內 제 14 상자내 放置 상황.



<도 4> 禮書類 소재, 恒圭의 종류.
 1. 향규, 주례. 2. 향규, 虞書. 3. 향규, 오례경해.
 4. 향규, 오례경해. 5. 향규. 삼제도회. 6. 향규. 대명회전.
 7. 향규, 명 정릉출토 전세실물 삼도.
 8. 명대 정능 출토 恒圭 전세 실물.
 9. 향규. 삼도, 이택봉의 1인,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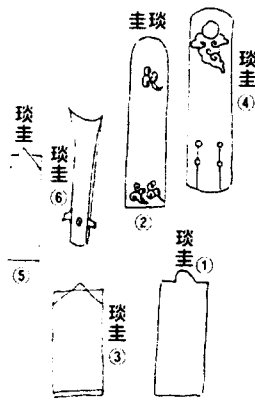


<도 5> 禮書類 소재, 信圭의 종류.
 1. 신규, 주례.
 2. 신규, 우서.
 3. 신규, 삼례도.
 4. 신규, 삼제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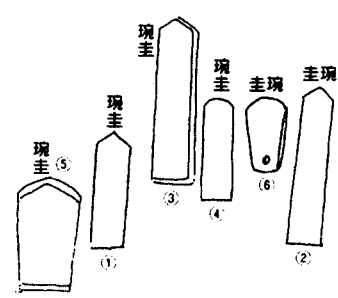
<도 6> 禮書類 소재, 躬圭의 종류.

1. 궁규, 주례.
2. 궁규, 우서.
3. 궁규, 삼례도.
4. 궁규, 오례경해.
5. 궁규, 삼제도회.
6. 궁규, 이택봉의 1인,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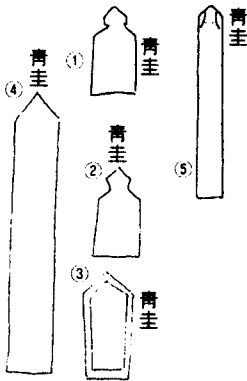
<도 7> 禮書類 소재, 琬圭의 종류.

1. 엄규(9寸), 주례.
2. 엄규, 삼례도.
3. 엄규, 오례경해.
4. 엄규, 오례경해.
5. 엄규, 삼제도회.
6. 엄규, 전세실물 삼도, 고궁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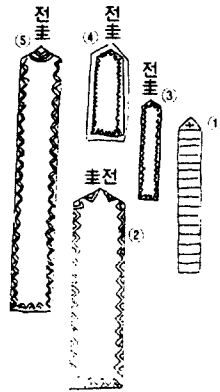
<도 8> 禮書類 소재, 琿圭의 종류.

1. 완규(9寸), 주례.
2. 완규, 삼례도.
3. 완규, 오례경해.
4. 완규, 삼제도회.
5. 완규, 오례경해.
6. 완규, 전세실물 삼도, 고궁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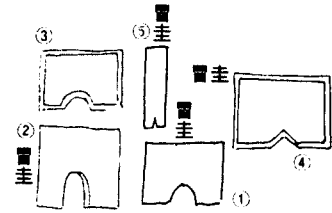
<도 9> 禮書類 소재, 淸圭의 종류.

1. 청규, 주례.
2. 청규, 삼례도.
3. 청규, 오례경해.
4. 청규, 삼제도회.
5. 청규, 삼례도, 삼제도회.



<도 10> 禮書類 소재, 琿圭의 종류.

1. 토규, 삼제도회.
2. 전규, 흥정의례의소.
3. 전규, 삼제도회.
4. 전규, 오례경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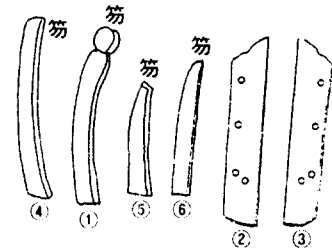
<도 11> 禮書類 소재, 冒圭의 종류.

1. 모규, 주례.
2. 모규, 삼례도.
3. 모규, 오례경해.
4. 모규, 오례경해.
5. 모규, 삼제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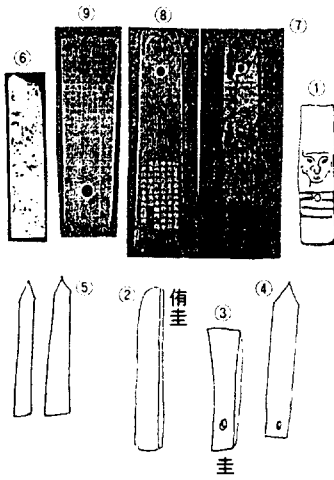
<도 13> 일본의 笏, 전세실물 삼도.

1. 聖武天皇 용 象牙笏 전세실물, 일본 정창원 복창 소장.
2. 백관용 상아홀 일본 궁내청 소장.
3. 백관용 목홀, 일본 동경 국립박물관 소장.
4. 관직자의 예복용 骨笏, 궁내청 소장.
5. 관직자의 상복용 竹木笏, 동경 국립박물관 소장.



<도 12> 禮書類 소재, 笏의 종류.

1. 홀, 삼례도.
- 2.
3. 홀, 古玉笏.
4. 백관용 홀, 대명집례.
5. 홀.
6. 홀, 대명집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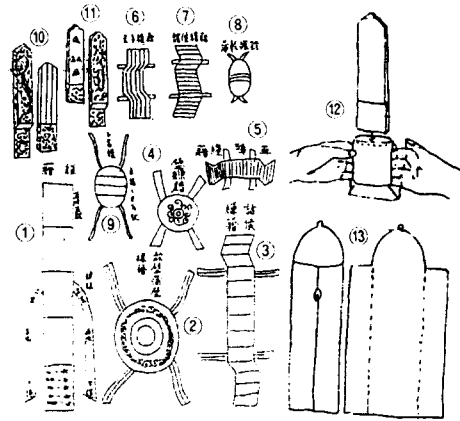


<도 14> 상.주대 전세 실물,圭의 종류.

1. 人面玉圭 전세실물 삼도, 이택봉의, 앞책,152.
2. 侑圭, 오례경해.
3. 圭, 전세실물 삼도, 고궁 박물관소장.
4. 圭, 이택봉의 1인, 21.
5. 戰國시대 石圭, 출토실물 삼도.문물, 1999, 8,12.도30.
6. 戰國시대 石圭, 출토실물 삼도.문물, 1998, 8,18.도7.
7. 商代(B.C.1766-1122) 圭의 前世 實物(1). 대북, 고궁박물관소장.
8. 周代(B.C.1122-221) 圭의 前世 實物(3). 대북, 고궁박물관소장.
9. 商.周代(B.C.1766-221) 圭의 前世 實物(2). 대북, 고궁박물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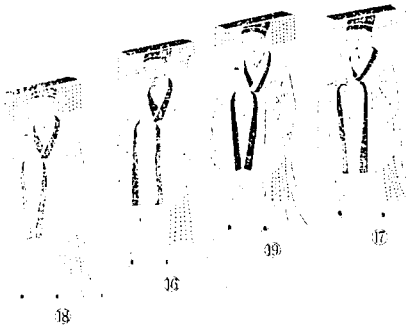


<도 15> 漢代 梁冠, 袍服, 簪筆차용관리, 石刻畫像, 山東省 濟南, 漢墓 出土.



<도 20> 禮書類 소재, 소자의 종류(1).

1. 오채오취소자, 삼제도회, 흥정 의례의소.
2. 곡벽, 포벽, 소자, 삼례도.
3. 제후소자, 삼례도.
4. 곡벽, 포벽소자, 주례.
5. 규, 장, 소자, 주례.
6. 천자오채오취소자, 삼제도회.
7. 제후소자, 삼제도회.
8. 포벽소자, 삼제도회.
9. 자남의 소자, 주록재취.
10. 명대 진규와 보관상자 삼도,대 명집례.
11. 명대 향규와 보관상자 삼도, 대명집례.
12. 명대 정릉출토 圭의 손잡이 싸개부분 전세실물 삼도
13. 명대 정릉출토 圭套의 전세실물 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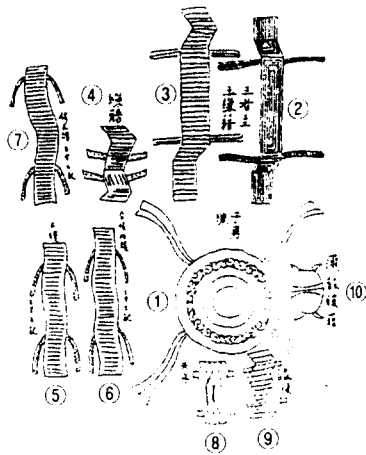


<도16> 上公의 곤룡복에 드는 향규. 삼례도.

<도17> 왕의 삼공의 벌면복에 드는 향규. 삼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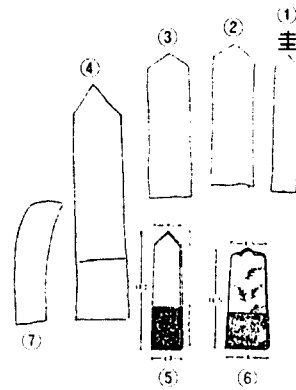
<도18> 후작의 벌면복에 드는 信圭. 삼례도.

<도19> 백작의 벌면복에 드는 躬圭. 삼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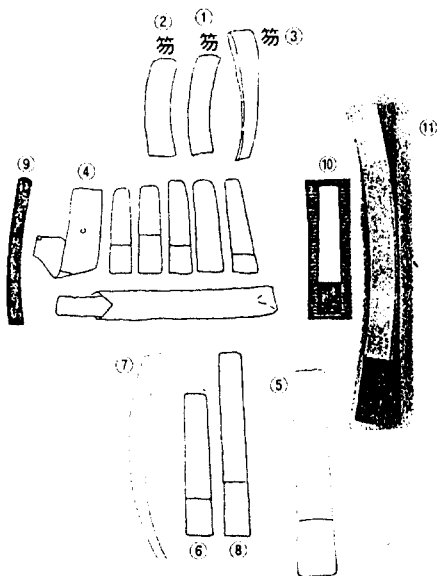
<도 21> 禮書類 소재, 소자의 종류(2)

1. 子 男의 소자, 삼제도회.
2. 3. 왕의 소자, 삼례도.
4. 소자, 주례.
5. 왕의 소자, 5채 5취.
6. 공, 후, 백의 소자, 3채 3취.
7. 왕이 빙례시 사용하는 소자, 3채 6취.
8. 천자용 소자, 오례경해.
9. 제후의 소자, 오례경해.
10. 포벽, 곡벽의 소자, 오례경해.



<도 22> 조선시대 禮書類 소재, 圭의 삽도.

1. 圭. 조선 국조오례의. 국조오례의 서례 祭服圖說, 국조오례의 서례. 嘉禮, 玉圭 圖說. 英祖 國葬圖鑑儀軌, 圭圖. 국조喪禮보편도설
2. 국왕용 규. 경모궁 의례, 117.
3. 왕세자용 규, 경모궁 의례, 137.
4. 대한제국, 황제용 진규, 대한예전.
5. 영친왕비 청옥규, 전세실물. 궁중유물관 소장,
6. 황태자비의 백옥규, 전세실물. 궁중유물관 소장,
7. 대한제국, 황후용 곡규, 대한예전.



<도 23> 조선시대 禮書類 소재, 笏의 삽도.

1. 笏. 왕세자용. 국조오례의.
2. 笏. 백관용, 국조오례의.
3. 백관용 笏, 경모궁 의례, 153.
4. 석주선 박물관소장, 조선 후기 상아홀의 전세 실물.
5. 민속자료 제2호 심동신(1824-)유품 상아홀, 석주선 박물관소장,
6. 민속자료 제13호 정원용(1783-1873)유품 상아홀, 민속 박물관소장,
7. 민속자료 제119호 이형상(1653-1733)유품 상아홀, 석주선 박물관소장.
8. 합천 해인사 소장, 상아홀, 고복남, 216-217.
9. 조선 후기(1815-1848), 笏,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10. 조선 후기, 笏, 한양대학교 박물관 소장.
11. 조선 후기, 笏, 호암미술관 소장.